

금강반 학습 계획

2020년 1월18일

담임: 류민희

시간	수업내용	교재 및 장소
1교시 (9:30~10:00)	<읽기와 이해하기> 미 타임 '올해의 인물'에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선정	학습계획 P.1-2
(10:00~11: 00)	고급과정 문화수업 김치 만들기	카페테리아
(11:00~11:20)	점심	
3교시 (11:20~12:40)	<번역 연습>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 UN연설	학습계획 P.3-5

***숙제:** 그레타 툰베리 UN연설 번역을 완성해 오세요.

- *알림:** 1. 다음 주는 가을학기 마지막 수업으로 한국학교 전체 설날 행사가 있습니다.
 2. 고급과정은 1교시 고급과정 글쓰기 수업 후, 김영순 선생님 지도로 종이 접기 수업이 진행됩니다. 이후 각반에서 피자파티와 성적표 배부의 시간을 갖습니다.
 3. 친구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스넥이 있으면 가져 오세요.

감사합니다.

<읽기와 이해하기> 미 타임 ‘올해의 인물’에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선정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16)가 미 시사 주간지 타임의 ‘2019년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다.

타임은 11일(현지시간) 툰베리가 포르투갈 리스본 해안 바위 위에 선 모습을 담은 사진을 표지에 실고 툰베리를 ‘올해의 인물’로 발표했다. 표지에는 ‘젊음의 힘’이라는 부제가 달렸다. 툰베리는 타임의 ‘올해의 인물’ 92년 역사상 가장 젊다. 타임은 “툰베리가 전세계 젊은이들의 변화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타임은 툰베리가 젊은 세대의 태도 변화에 기여했으며, 세계 곳곳에서 기후변화 대응·경제적 불평등 해소·정치적 민주화를 요구하는 젊은이들의 힘이 급격히 커지고 있다고 했다.

툰베리는 지난해 8월 학교를 결석하고 스웨덴 의사당 밖에서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촉구하는 ‘학교 파업’ 시위를 시작했다. 이는 전세계 100만명의 학생들이 참여한 ‘기후파업’의 촉매제가 됐다. 이후 툰베리는 청소년 환경운동의 상징이 됐다. 툰베리는 지난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처를 촉구하는 연설로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당시 툰베리는 “내가 있어야 할 곳은 학교인데 당신들이 우리를 배신해서 이 자리에 섰다”며 세계

지도자들을 겨냥해 목소리를 높였다. 툰베리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범 중 하나인 비행기를 이용하지 않겠다며 요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유엔총회에 참석했다.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에도 오른 툰베리는 지난 9월 ‘대안노벨상’이라 불리는 바른생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바른생활상재단은 툰베리가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시급한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요구하는 정치적 목소리를 키우는 공로를 세웠다고 시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4일 바른생활상 시상식에서 시상자로 나선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의 요한 록스트룀 소장은 “젊은이는 터널 속 빛”이라며 “툰베리는 기후 대응 행동의 잔 다르크”라고 했다. 유엔 기후변화 콘퍼런스에 참석하느라 시상식에 불참한 툰베리 대신 ‘동료’들이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타임은 1927년부터 매년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뉴스나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이나 단체를 선정해 발표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진실을 위해 싸우다 희생을 감수한 언론인들을 선정했다. 앞서 미투 운동,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이 선정된 바 있다.

2. For more than 30 years, the science has been crystal clear. How dare you continue to look away and come here saying that you are doing enough when the politics and solutions needed are still nowhere in sight? You say you hear us and that you understand the urgency, but no matter how sad and angry I am, I do not want to believe that because if you really understood the situation and still kept on failing to act, then you would be evil and that I refuse to believe.

The popular idea of cutting our emissions in half in 10 years only gives us a 50% chance of staying below 1.5 degrees and the risk of setting off irreversible chain reactions beyond human control. 50% may be acceptable to you, but those numbers do not include tipping points. Most feedback loops, additional warming hidden by toxic air pollution or the aspects of equity and climate justice. They also rely on my generation sucking hundreds of billions of tons of your CO2 out of the air with technologies that barely exist. So, a 50% risk is simply not acceptable to us, we who have to live with the consequences.

3. How dare you pretend that this can be sold with just business as usual and some technical solutions? With today's emissions levels, that remaining CO2 budget will be entirely gone within less than eight and a half years. There will not be any solutions or plans presented in line with these figures here today because these numbers are too uncomfortable and you are still not mature enough to tell it like it is. You are failing us, but the young people are starting to understand your betrayal. The eyes of all future generations are upon you. And if you choose to fail us, I say, we will never forgive you. We will not let you get away with this. Right here, right now is where we draw the line. The world is waking up and change is coming, whether you like it or not. Thank you.

<번역 단어 리스트>

1. Ecosystem: 생태계
2. Mass extinction: 대량 멸종
3. economic growth: 경제 성장
4. emission: 가스 배출량
5. Irreversible: 돌이킬 수 없는
6. chain reactions: 연쇄 반응
7. Toxic: 독성
8. Air pollution: 대기 오염
9. Aspect: 측면
10. Equity: 평등
11. Justice: 정의
12. Budget: 예산
13. Betrayal: 배신
14. Future generation: 미래 세대

